

4·27 순천 보선 전망과 지역민심

# 민주 공천 경쟁에 10여명 몰려 “얼굴 알리는 철새 정치인 안된다”

## 야권연대·노관규 시장 출마 여부 최대변수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전이 설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이후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본격화되고 가장 큰 변수인 야권연대와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의 출마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누가 뛰나=현재 박상철(51) 경기대 교수와 허 선(59)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또 조재환(62) 전 민주당 의원이 설 이후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신태호 변호사, 구희승 변호사, 이광수 전 민주당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어 고배를 마신 적이 있고, 박상철 교수와 허신행 전 장관, 이광수 전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경선에 나섰다 가 서갑원 의원에겐 패배를 당한 뒤 ‘와신상담’해왔다.

허상만 전 장관은 자신의 모교인 순천고, 전남대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총장을 지냈던 순천대 인맥들이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희승·신태호 변호사도 그동안 골 끝 선거에 얼굴을 내밀어 순천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수근 전 전남도당 위원장과 김선동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김기룡 특임실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변수’=이번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변수는 야권연대와 ‘채선’인 노관규 순천시장의 출마 여부다. 민주당은 내



구희승



김기룡



김선동



박상철



이수근



조순용



허 선



허상만

심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득표권을 포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를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부터 야권연대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의 열원 실현을 위해 모든 정당은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득표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더라도 강력한 반(反) 한나라당 야권연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순천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권을 포기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채선’을 한 노관규 시장의 출마 여부도 이번 보궐선거의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노 시장은 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변의 많은 지지자들이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순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세 분석 및 지역 민심=민선 1·2·3기 민선 시장들이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인기를 채우지 못한 데다 국회의원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함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는 청렴도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판세분석은 이르지만,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 중 ‘절대강자’가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지역민들은 선거 때면 되면 얼굴을 내밀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순천을 떠나는 인사들이 많아 ‘정치 철새’를 이번 선거에서는 꼭 배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순천에서 만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에서 활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선거 때만 잠시 얼굴을 보였다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보따리를 사서 서울로 가고, 또 선거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정치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는 순천시민과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에 입지자들이 많은 것은 보궐선거 출마가 주요 목적이 아니라 노관규 순천시장의 출마에 대비, 순천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 시장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순천시장 보궐선거를 노리고 ‘얼굴 알리기 차원’에서 입지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과학벨트, 위원회서 공정하게 선정”

## 李대통령 신년 방송좌담회

### 北 변화 보이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국제유가 추세 봐서 유류세 인하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과 관련, “백지 상태에서 출발, 위원회가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다. 그것이 총청

도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백년대계이니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백지 상태에서 출발 하자는 것이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렇다. 그게 맞다. 그러면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바뀌어야 성과

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발)은 없었던 양 각계각층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그럼에도 실무진 대화를 시작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북한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늦지 않고 금년에는 적절하다”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으로 생각하다보니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여러 요소가 검토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각 여부와 관련, 이 대통령은 “3

주년 되고 이런 정치적 동기는 없다.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취임 3주년 개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회전문, 오기인사라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단임제로 5년을 하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가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선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며 “정부는 정치가 아니다. 정부는 하나의 팀워크를 갖고 일해야 한다. 팀워크가 맞는 사람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악화된 여야 관계에 대해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결핍하면 ‘청와대’, ‘대통령’ 이된다. 조그만 것도 대통령 사과하라 그런다”며 야당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이 대통령은 “연초 시작하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며 가능성을 나타냈다.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집트 사건이 터져서 100불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 대처와 관련, “초기에 더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었을까 생각도 한다”며 “안동에 있다가 경기도 북쪽으로 사료차가 갔다고 그런다. 그런 점에서 안동 주위만 챙겼다고 해서 초동대처가 미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1 신년방송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설 민심 잡아라”...여야 지도부 서울역 총출동 귀성인사

여야 지도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귀성인과가 몰리는 서울역을 찾아 복지정책 홍보전에 나서 등 민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하고, 연휴기간 지역구인 경기 의왕시 재래시장과 과천시 경로당 등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전사령부를 찾아 소말리아 해적 인질 구출작전을 치러했다.

한나라당은 연휴기간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복지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편성한 서민예산과 당의 복지정책을 홍보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한 뒤 연휴기간 주로 서울에 머물며 4.27 재보궐선거 및 복지정책과 관련한 정국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서울역 귀성인사 후 지역구인 목포

를 찾아 설 민심을 청취하고, 당의 복지정책을 설명한다.

민주당은 무상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와 여당의 ‘복지 포플리즘’ 공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도 이날 당직자들과 함께 서울역을 찾아 귀향인사를 하고, 정책 홍보전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

## 손학규 “영수회담 환영”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일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 도중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환영한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영수회담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 조이여행사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살펴 주심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